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非理의혹

노조 "불투명 경영 · 비자금조성 · 부당해고 조합장 퇴진" 요구

포천개성인삼 농협 조합원들이 12년째 조합장을 역임해온 박창학(70) 조합장을 향해 투명치 못한 경영과 비자금조성, 부당해고 등 수많은 전횡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각 지부에 배포하고 지난 달 24일 천막농성을 통해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함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국농협협동조합 경기인천지역 포천개성인삼분회(분회장 김용수)에 따르면 그동안 박창학 조합장이 거치매출로 손익결산을 위조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조합경영 및 대의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혀 조합과 직원간의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는 것이다.

포천개성인삼분회는 지난 2일 유인물과 대자보를 통해 조합장 관련한 7가지 각종비리와 불합리한 경영사태를 밝히면서 조합장 퇴진과 비리조합장에 의해 부당 해고된 직원의 복직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농협노조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해고 철회와 비리조합장 퇴진'을 위한 전국농협노조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 후 포천경찰서를 방문해 '조속한 수사속진'을 위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유인물에는 박 조합장이 지난 2002년부터연월차수당 약 7천만원을 거짓 정보로 강제 회수하고 이

사회의 공식 안전상정 없이 갑자기 긴급돌입을 발의해 농협법을 어겨가며 인센티브 1억원을 수령하였으며, 2003년에는 사채 약 6억을 끌어와 불투명하게 사용하여 조합경영의 부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자산 30억원을 투입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동공장이 가동되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44억 지원사업이 백지화를 야기시켰으며, 조합결산이 안된다는 이유로 6급이상 전직원에게 판매안되는 5년근 흉상 6억원을 강매하여 전직원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직원에게 해고한다고 위협하여 1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 조합장은 그들의 유인물에 대응해 "노동조합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중상모략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해명한다"는 제목의 해명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면서 "모든 자금은 개인용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그들이 주장한 불투명하게 사용한 자금은 조합원 잘못으로 손실된 인삼의 손해분을 충당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조합 이사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포천개성인삼분회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300여명의 전국농협노조 경기지역본부 개성인삼분회원이 포천개성인삼농협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개성인삼농협은 98년 처음 15명의 인원으로 만들어져 올해 220여명 직원이 일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해 오면서 노조와 임원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다. 지난 4일 집회 후 포천경찰서를 향의 방면하여 "이번 주중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포천경찰서장의 답변을 들은 포천개성인삼분회 김용수 분회장은 "조합장 한사람의 비리 때문에 야기된 일이나 만큼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포천시 농협 관계자는 "관리자체는 지역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천농협지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농협직원임장에서 불패 부정을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365창구 개설

본지는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직접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나 물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소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 11월30일부터 12월9일까지 불우이웃돕기 365창구에 참여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금은 계좌로 입금 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소설가 김순진 50,000원
- ◆이복용 금마고속관광(주)대표 200,000원
- ◆호남기구인연합회 박영선 회장 등 회원일동 500,000원
- ◆안운정 미라복집 대표 50,000원
- ◆윤종하 골든산업 자기방기구 대표 100,000원

- ◆포천신문 자원위원회 일동 2,000,000원
- 강경만 강경만공인노무사사무실 대표
- 김성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영진 경북대학 교무처장
- 김인만 대성산업사 대표
- 김인태 (주)현대차집 대표
- 김정원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정희 보문정사 주지사님
- 김재동 김재동변호사사무소 대표
- 김재현 포천모범농전지회 회장
- 김중기 포천 안경박사 대표
- 김창중 한국글시랑문학회 부회장
- 니근수 경동종합건설(주) 대표
- 문영환 양문김리교회 목사
- 박노현 용아섬유(주) 대표
- 박문우 박문우변호사사무실 대표
- 송광수 공인회계사 송광수사무소 대표
- 송중채 (주)심흥 대표
- 안병호 경기북부전기인전관리공사 대표
- 양재창 포천향교 전교
- 양승수 포천시법원민사조정위원회 회장
- 윤순옥 포천제21협의회 회장
- 윤종성 포천재향군인회 고문
- 윤종하 골든산업 자기방기구 대표
- 이동해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 회장
- 이문환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소장
- 이병일 (사)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 이상노 포천동체육회 회장
- 이종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이희용 포천연구협회 회장
- 장동원 정문사에 원장
- 정호열 호명화학공업(주) 대표
- 조대행 동남고등학교 교장
- 조복현 국제산업(주) 대표
- 최중규 전 포천향교 전교
- 한희준 한신단열 대표
- 최윤섭 침곡화실 대표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12-113010(최호열)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365창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포천시, 가구산업 활성화 기대

가구 산업 특화 ·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포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구 산업 특화 ·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내 지역산업인 가구산업의 현황과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제반 여건 분석을 통해, 가구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특화 · 전략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회는 박운국 포천시장의 사회로 이 방안을 연구한 이낙현 책임연구원(대진대), 안준수 교수(대진대), 윤여환 교수(홍익대), 김미숙 교수(남서울대)등과 박희면 과장(한국디자인진흥원), 최덕용 대표이사(나래스가구기술연구소), 이종군 과장(경기도제2청), 정병학 과장(포천시 지역산업과)이 참석해 이루어졌다.

책임연구원 이낙현 교수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관내 가구산업이 침체를 맞고 있다며 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교수는 포천의 가구산업에 ▶영세업체 및 무등록업체의 높은 분포 ▶목재가구생산업체의 높은 비중 ▶디자인 미비와 기술개발 부족 ▶고유브랜드의 부재 및 낮은 인지도 ▶친환경 제품개발의 필요 ▶디자인 인력 양성 및 유통채널 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재를 이용한 인주나 거울 등의 예시 ▶포천가구비엔날레 및 국제가구공모전 · 여성가구공모전 등을 통한 브랜드 육성 및 홍보전략 ▶연구소 유치 등을 통한 연구개발전략 ▶일본 아사히카와와 등과의 교류 ▶학계와 연

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구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박운국 시장은 "이번 보고를 통해 관내 가구산업 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가구산업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패널로 참여한 위원들은 최종보고회로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데이터부족, 경기도 가구산업 발전 용역과의 중복성, 20년 정도 뒤쳐진 일본과의 격차해소 등을 질문했다.

반면 안준수 교수는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 테크노파크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며 "무엇보다도 가구 디자인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면 효율적인 가구산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온정의 손길 모아

바르게살기운동, 해뜨는 집 봉사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업)는 내촌면여성위원들을 주축으로 이웃사랑의 온정을 펼쳤다.

지난 3일 신북면 기지리의 불우시설인 해뜨는 집(원장 박진수)에서는 바살협여성위원 10여명이 청소 및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바살협은 해뜨는 집과 노아의 집을 매달 번갈아 방문해 몸이 불편한 지체아들의 목욕과 청소, 빨래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봉사해 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봉사자는 "노아의 집에 비해 해뜨는 집은 시설이 열악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다"며 "두 달에 한번씩 잠깐 다녀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지혁배기자 94spice@hanmail.net

경기도는 단 한 개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지구를 몇 바퀴 돌겠습니다



청년실업, 경기도가 해결하겠습니다.

청년실업 100만명 육박,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경기도는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델파이 연구소 240명, LG필립스 LCD공장 직접고용 1만명을 포함한 총 3만명의 고용효과, 미국의 시멘스메디컬 250명, 경기도의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단은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0년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겠습니다.